

## 시론

노봉호 목사  
정부중앙교회

기독교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삶의 여유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보다 돈, 교회보다 나 중심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질과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이에 교회 또한 영적 생명을 잃어가며 종교단체로 변해 가며, 복음의 능력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실린 생명의 설교를 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목회자와 강단이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잃어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맛을 잊은 소금처럼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교회다운 맛이 있어야 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맛을 잊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

## 맛을 잃어가는 교회

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복음은 생명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 서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의 정체성인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사이에 예수를 잊어버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를 잊어버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점점 잊어가고 있다. 많은 작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실망한 채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재정의 악화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하여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변에 수요예배,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식사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삼단수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부와 그 많던 경비와 친양집회와 수련회가 사라지고 있다.

대학에서 기독교 이해와 채플을 강의하면서 태아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 한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학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 일에 안타깝다. 강의를 듣고 난 후의 소감에 “이런 곳이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종교라면 만약 종교를 갖게 될 경우 기독교를 택하겠다”고 하는 평가를 보며 과거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없었던 이 한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는 경제, 문화의 발전에 따라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변해버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교회 성도들이 고령화 되어지고, 점점 예배가 축소되면서 기도원과 교회의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사단은 한국교회를 넘어뜨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인구 대비 전 세계의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던 한국교회를 땅끝까지 선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벌약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세워질까 봐 세상에 신발벗고 도비아와 같은 부리들은 개독교 타도를 외치며 교회를 암박하고 있고, 모든 방송이 기독교는 종교 편향이라며 기독교인의 입을 막으면서 사주, 관상, 태로, 무당 등 미신적 행위는 점점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 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예루살렘에 망하고 미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잊어버린 체 그날 강가에 울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회복을 주신 것처럼 금식하며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때이다. 느헤미야가 보았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같이 맛을 잊어가는 한국교회를 보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라가 외쳐듯 우리가 일어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야 할 때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로 돌아와 아멘! 아멘! 하며 물부짖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처럼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되돌이켜 내 안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성령인들이 단결하여 무너진 한국교회의 복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칼럼

강성범 목사  
서울반석교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받았다. 수많은 창조물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갖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상은 곧 사물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인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에는 도덕적, 영적 완전성뿐만

##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목숨을 끊었다. 그로 인해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제 군에서 누구라도 성전환수술하면 성(sexuality)을 비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오늘날 일련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시대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인가? 실낙원하고 애벤풍산에서 쫓겨나고 밟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밟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받은 아름답고 영광스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본질인 도덕적 판단도 인격도 윤리도 모두 파괴되고 만는 것이다. 실주시키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형상이 실주되었고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롬 5:12, 19).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루 5: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막 1:15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

인간의 교관과 불순종의 결과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임할 때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목숨을 끊었다. 그로 인해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제 군에서 누구라도 성전환수술하면 성(sexuality)을 비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오늘날 일련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시대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인가? 실낙원하고 애벤풍산에서 쫓겨나고 밟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밟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받은 아름답고 영광스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본질인 도덕적 판단도 인격도 윤리도 모두 파괴되고 만는 것이다. 실주시키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형상이 실주되었고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롬 5:12, 19).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루 5: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막 1:15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

인간의 교관과 불순종의 결과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임할 때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본 교단 소속 원로목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성결신문 구독을 원하지만 본사에 주소가 누락되어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원로목사님들께서는 거주 주소를 알려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070-7132-0091~5

성결신문

## 피아노 조율 전국 협회

서울 105 시외 11 그랜드 14.5~15  
비정기·외제·외곽·1만원씩 추가 연주용+3.5

YouTube 피아노조율협회 조율은 6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010-7900-4475  
전국 1577-9802

관계전도 재정자립  
노후사역 미리준비

사역자 최고의 이중직, 재택 디자인강좌  
유튜브 영상편집 개인지도 디자인생이김재우

전도지 17원씩 물티슈 200

이제 정장면 박사의  
심층적이고 세밀한 이단 강의를 통하  
그 실체가 파헤쳐진다.

(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 타종교」 강의)

비단,

무엇이 문제인가?

## 세미나 특징

- 하나님의 교회(안상충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실제 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파악
- 성경해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주장과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김만수 사장 강병익 편집인 권순달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기길 11(현충동 1-29 종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 (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destra d'aziz원&합법  
adm  
admhaus.com

